

# 康有爲의 大同思想 研究

鄭 仁 在

1. 대동사상의 연원
2. 《大同書》의 성립과정
3. 대동사상의 이론 핵심: 仁
4. 대동사회의 理想
5. 마무리

## 1. 대동사상의 연원

서양세력이 새로운 무기를 앞세우고 중국을 위협한 아편전쟁(1840) 이후, 중국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가지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洪秀全(1814-1864)의 太平天國운동, 康有爲(1858-1927)의 變法自疆운동, 그리고 孫文(1866-1925)의 三民主義운동이다. 본 연구는 康有爲의 변법사상운동의 이상적 사회모델인 '大同'사회에 대한 그의 철학적 견해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이 있다.

康有爲의 대동사상이 형성된 것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대동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그의 저서인

《大同書》이지만, 이 저서가 나타나기 오래 전부터 그의 大同事상은 이미 여러 글 속에 표현되어 있었다. 대동사상의 이론적인 바탕은 아무래도 유가의 전통적 大同事상을 기본으로 서구의 진화론을 흡수하여 그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론으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康有爲의 대동사상은 이론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公羊 三世의 역사진화론이다. 康有爲는 동한 경학가 何休의 春秋公羊傳 해석을 기반으로 서구의 진화론을 받아들여 그의 三世說을 전개하였다. 何休는 역사를 세 단계 즉, ‘傳聞之世’의 ‘衰亂’, ‘所聞之世’의 ‘升平’, ‘所見之世’의 ‘太平’으로 나누고 역사는 ‘衰亂’에서 ‘升平’으로 ‘升平’에서 ‘太平’으로 발전되기 마련이라고 하였다.<sup>1)</sup> 일단 ‘太平’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전부가 ‘大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康有爲는 公羊 三世說의 영향을 받아, 1884년에는 三世로 미래를 추리하였고, 1887년에는 《人類公理》를 編著하고 또 “孔子의 據亂, 升平, 太平의 理를 미루어 지구를 논하였다.”<sup>2)</sup>고 하여, 그는 三世이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었다. 그는 三世說과 당시 사회 발전 이론을 서로 결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공자의 길에는 3統3세가 있다. 이것은 대개 三統에 근거하여 三世를 밝힌 것이다. 3세를 추리하였기 때문에 100세를 미루었다. 하, 은, 주란 3통이 번갈아 선양하여 정권이 옮겨갔다. 각기 그대로 앞의 왕조를 따르기도 하고 개혁하기도 하여 빼버리거나 더하는 것이 있었다.

1) 《春秋》公羊傳

2) 《康南海自編年譜》, p.119

3대의 변화를 살펴보면 百世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인류의 진화는 모두 정해진 자리(定位)가 있다. 族弟에서 부터 部落으로 되고, 國家를 이루었다. 국가로부터 大統을 이루었다. 獨立으로 말미암아 점차 酋長을 세우고, 주장으로부터 점차 君臣을 바르게 하였고, 君臣으로부터 점차 立憲을 하였으며, 立憲으로부터 점차 共和를 하였다. 獨人으로부터 점차 夫婦가 되었고, 夫婦로 말미암아 점차 父子가 정해졌으며, 父子로부터 인류가 결합하여 주어졌고(兼錫爾類), 錫類로부터 점차로 大同이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獨人이 되었다. 대개 據亂에서 升平으로 진화되고, 升平에서 太平으로 진화된다. 진화에는 점차적인 데가 있으며, 인습과 변혁에는 거치는 바가 있다. 그것을 모든 나라에 검증해 보아도 같은 풍속이 아님이 없다.<sup>3)</sup>

이 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公羊 三世說은 결국 大同思想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그의 3세설은 인류사회의 발전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太平世으로 진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태평세의 사회는 어떠한 경지의 사회인가? 그는 그 사회의 원형을 《禮記·禮運》편에서 말한 ‘大同’에서 찾아내었던 것이다.

《禮記·禮運》은 대동사회의 그림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 3) “孔子之道，有三統三世，此蓋籍三統以明三世。因推三世而及百世也。夏殷周者，三統遞嬗，各有因革損益，觀三代之變，則百世之變可知也。人類進化，皆有定位。自族制而爲部落，而成國家，由國家而成大統。由獨立而漸有酋長，由酋長而漸正君臣，由君臣漸定立憲，由立憲而爲共和。由獨人而漸爲夫婦，由夫婦而漸定父子，由父子而兼錫爾類，由錫類而漸爲大同。于是復爲獨人，蓋自據亂世進爲升平，升平進爲太平。進化有漸，因革有由。驗之萬國，莫不同風。”(康有爲, 《論語注》, 卷 2.)

위대한 길(大道)이 실천이 되는 것은 온 세계가 公有하게 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선출하고, 믿음을 강의하고 화목을 닦아나간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의 양친만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자녀만을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세상을 마칠 수 있을 데를, 장년을 쓰일 데를, 어린이는 자라날 수 있는 데를, 홀아비, 과부, 고아, 독신, 병든 자, 아픈 자는 모두 부양 받을 데가 있게 만든다. 남자는 자기 직분을 갖고, 여자는 시집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한다. 재화는 그것이 땅에 버려짐을 싫어하고 반드시 자기에게 저장되지 않게 한다. 노동력은 그것이 자신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면서 반드시 자기의 것만이 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잔꾀는 단혀지고 일어나지 않으며, 도적질하고 남을 해치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박으로 나와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大同이라 한다.<sup>4)</sup>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동사회는 ‘온 세상이 公有’(天下爲公)되는 공동소유제(公有制)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현인(賢人)과 능력인(能人)을 선출하여 봉건사회의 혈연중심의 인물등용을 반대하였으며 자신의 부모, 자기의 자녀만을 아끼고 보살피는 가족이기주의를 지양하여 모든 사람이 소외 받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주의를 이상으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4) “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修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于地也，不必藏于己。力惡其不出于身也，不必爲己。是故，謨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禮記·禮運》）

으로도 재화를 유통시키는(要其棄于地) 市場기능을 따르되 반드시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않게, 즉 재산의 獨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재산 公有制을 실행하는 것이다. 老人, 壯年, 어린이가 연령에 맞게 대우받고 소외계층인 과부, 홀아비, 고아, 그리고 병든 이들이 모두 부양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대동 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康有爲는 《禮運》의 대동사상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禮運》을 읽고 나서 마음이 후련히 넓어졌다.(浩然) 그리고 감탄하여 이렇게 말했다. 공자의 3세의 변화와 위대한 길의 참됨이 모두 여기에 있다. 大同小康의 길은 분명하게 발휘하였고 특별히 자세하였다. 古今 진화의 까닭과 神聖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김이 깊은 것도 여기에 있다. 서로 때맞추어 미루어 나가고, 함께 행하여도 어그러지지 않으니, 時聖이 變通하여 이익을 극진히 함도 여기에 있다. 이 저서는 공자의 微言이 참되게 전해진 것이며, 온 나라의 더없이 귀한 寶典이다. 온 세상 모든 생명이 죽어도 다시 일으키는 신비로운 처방이다. 하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여 이 때문에 없이지 않았다. 여러 聖인들이 보호해주어 다행히도 이 때문에 전하게 되었다. 2500년 나에게까지 이르러 커다란 보물이 발견되었다.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백성에게 심어준다. 밝은 달을 걸어놓아 긴 감을 비추며, 사랑(仁)으로 온 세상을 구제하고, 大地가 낳은 인간을 大同의 지역에 받아들여, 공자의 길을 크게 光明케 하니, 어찌 달라지지 않겠는가?5)

5) “讀至禮運，乃浩然而嘆曰：孔子三世之變，大道之眞在是矣。大同小康之道，發之明而別之精。古今進化之故，神聖憫世之深在是矣。”(《康有爲政

康有爲에 의하면 《禮記·禮運》편은 공자의 微言大義가 참되게 전해진 것으로, 三世說, 大同, 小康의 길이 모두 이곳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자의 길을 크게 개방하여 빛나게(大放光明) 하기 위하여 대동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전개하여 그 뜻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康有爲는 《禮運》에 나타난 대동사상을 근거로 하여 자기의 대동철학을 새로이 전개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큰 길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치는 지극히 공정하니, 태평세의 大同의 길이다. …… 온 세상이 공정하여 현인과 능력인을 선출하는 것은 온 세상을 관리하는 것이다. 대체로 天下, 國家란 天下, 國家의 사람들을 위한 公共적으로 함께 소유하는 도구(器)이지 한 사람, 한 가족의 私有로 얻은 것이 아니다. 대중이 공적으로 현인과 능력인을 선출하여 그 직책을 맡기는데 합쳐되어야 하지, 그 자손, 형제들에게 대대로 전해질 수는 없다. 이것이 君臣의 公理이다. 신용을 강구하며 화목을 닦는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사이, 사람과 사람의 사권이 모두 平等 自立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서로 평화조약을 세우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킨다. 때로는 正義를 세우고 조화롭게 친목을 지킨다. 단지 속임수를 없애고 걱정을 없애며 다툼과 죽임을 경계함이 있을 뿐, 온갖 法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것은 벗들이 믿음을 갖는 公理이다. …… 변화된 풍속이 오래되고 아름다워서 傳種 개량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私를 제거하고 공을 위할 수 있다. 자기만을 오로지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재화를 나누어 公有로 돌리고,

힘을 내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 …… 대체로 나라도 있고 집도 있고 자기도 있다면, 각기 그 경계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私有化한다. 그것은 公理를 해치고 진화를 막는 것이 심하다. 오직 하늘은 사람을 낳는 근본이다. 사람마다 모두 하늘이 낳은 것이며, 저기에 직접 속해있다. 대체로 하늘 아래 속해있는 것은 모두 그것을 公有化한다. 그러므로 國界를 세워서 強者と 弱者가 서로 다투는데 이르지 않을 뿐 아니라, 家界를 세워서 부모의 사랑이 넓어지지 않는데 이르지도 않고, 또 身界를 세워서 재화와 노동력이 스스로를 위하는 데만 이르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단지 天下가 公正하게 되어 일체가 모두 公理에 근본을 둘 뿐이다. 공이란 사람마다 한결같은을 말하고 貴賤의 구분도 없고, 빈부의 차등도 없다. 인종의 다름도 없고, 남녀의 차이도 없다. …… 이른바 君主도 없고, 이른바 나라도 없다. 사람마다 모두 公유재산(公產)에 의하여 가르침받고 길러지며, 사유재산(私產)에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사유재산을 많이 가져도 그것을 公유재산으로 나누어주면 사람들은 그 사유재산을 사용할 데가 없는데, 왜 반드시 권모술수로써 신의를 해치겠는가? 더욱이 왜 기꺼이 도적이 되어서 자신을 이름을 손상시키려 하겠는가? 이런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생각도 없이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막고 걱정할 데가 없다. 그러므로 문을 나와도 잠그지 않고, 군사로 혁명할 줄 모른다. 이것이 大同의 길이며 太平世에 행하는 것이다. 오직 사람마다 모두 公平하기 때문에 남과 더불어 大同할 수 있다.<sup>6)</sup>

6) 《禮運注》，中華書局，1987年版，pp.239-240

《禮運注》에 나타난 大同事상은 후일 《大同書》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康有爲의 大同事상은 중국 전통사상과 서양의 근대 민주사상이 융합되어 있으므로 그 역사적 래원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 2. 《大同書》의 성립과정

康有爲의 대동사상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과 그 撰述과정을 살펴보면, 대동사상이 싹튼 것은 19세기 80년대이며 완성된 것은 20세기 초반이었다. 그것은 당시 중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나온 산물이다. 蕭公權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康有爲의 사회사상은 두 가지 층차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사무에 관심을 쏟아 청나라 말기에는 청나라 帝國의 危亡을 구제하려고 시도하였고, 民國 시기에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政局을 비평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론과 상상의 영역에 정신을 내달리어 현실을 초탈하였다. 강씨는 언제나 이 두 층차 사이를 왕래하였다. 어떤 때는 동시에 두 층차에 발을 딛고 있었다. 그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실제의 개혁가와 유토피아의 사상가로서……7)

이것은 康有爲의 유토피아 사상을 대표하는 《大同書》가 당시의 현실개혁의 의지에서 나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저서가

7) 蕭公權 著, 汪榮祖 譯, 《近代中國與新世界: 康有爲變法與大同思想研究》, 江蘇人民出版社, 1997年. p.363

완성되기 전에 康有爲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대체로 1884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유가의 경전, 불교 경전, 중국의 제도, 서양의 번역서 등을 광범위하게 읽은 뒤에 독립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그의 사회사상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884년 겨울 여러 가지 사상을 융합하여 대동사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때부터 《大同書》가 쓰여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1913년 현존하는 《大同書》가 출현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것은 대체로 4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1884-1887). 그는 1885년 《人類公理》를 저술하여, 대동사상의 기초적 사상을 형성하였다. 康有爲는 “내 나이 27세에 光緒甲申(1884), 프랑스 군대가 羊城을 뒤흔들었을 때 나는 군대를 피하여 西樵山 北銀塘鄉의 七檜園 澹如樓에서 국가의 어려움을 느끼고, 민중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어 大同書를 지었다.”<sup>8)</sup>고 하였다. 1884년 겨울 때마침 타고한 《禮運注》를 기초로 하여 《大同書》의 초고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3년간 노력으로 초보적인 완성을 한 뒤, 大同사회는 “人理가 至公”하다고 생각하여 이 저서의 이름을 《人類公理》라고 명명하였다. 1885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두통을 앓으면서도 그는 “이에 大同의 制度를 手定하여 《人類公理》라고 이름 붙인다. 나는 이미 道를 들었고, 이미 大同을 定하였으니 죽어도 좋다.”<sup>9)</sup>고 하였다. 그는 1886년 《內外康繙》을 지어 내편에서는 天地, 人物의 원리(理)를, 외편에서는 政教, 禮樂의 事를 언급하였다. 또 《公理書》를 지었다고 한다. 臧

8) 康有爲, 《大同書》, 二部の 題詞, 1919年刊, 李聖愛 옮김, 민음사, 1991. 저자서문, P.17

9) “乃手定大同之制, 名曰, 人類公理, 以爲吾既聞道, 既定大同, 可以死矣.” (《康南海自編年譜》, 〈戊戌變法〉4)

世俊에 의하면 《人類公理》와 《公理書》의 원고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實理公法全書》를 쓰는 과정 중의 원고본으로, 이 저서는 대동사회 형성을 위한 최초의 이론형태이며 1884년에서 1887년까지 4년간의 그가 이상사회를 탐색하는 첫 단계였다는 것이다.<sup>10)</sup>

둘째 단계(1890-1897)는 廣州 萬木草堂에서 講學한 시기이며, 《人類公理》에 기초하여 《大同書》의 第二部 草稿를 완성하였다. 그는 《大同書》의 초고를 충실히 修改하는 과정에서 그의 제자 陳千秋, 梁啓超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梁啓超는 “선생은 당시 바야흐로 《公理通》, 《大同學》 등의 저서를 지었는데, 매번 通甫(陳千秋)와 상의하여, 분석이 매우 세밀하였다. 나는 곧 末席에서 모시었다.”<sup>11)</sup>고 하였다. 《大同學》은 바로 《大同書》이며, 陳千秋와 梁啓超는 이 책을 읽고 매우 고무를 받았다고 한다. “읽으면 크게 즐겁고, 그 한 부분을 힘써 선전하고 싶었다.”<sup>12)</sup>고 하였다. 《大同書》의 手稿本을 직접 본 日本人, 犬養毅에 의하면, 1898년 10월 康有爲가 日本에 갔을 때, “《大同書》의 원고본 20여 편을 보여주었다”<sup>13)</sup>고 한 것으로 보아, 戊戌變法 이전에 康有爲는 《大同書》의 초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 2부 초고는 이미 散失되었고, 梁啓超가 1901년에 쓴 《康南海傳》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大同의 學은 공자의 제자들이 받은 것이 드물었다. 子游, 孟子가 약간 그 대략을 얻었으나, 그 학

10) 臧世俊, 《康有爲大同思想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7.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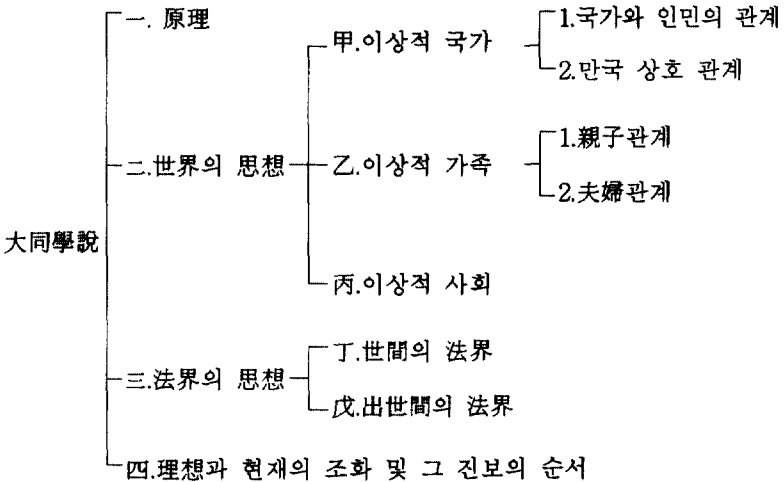
11) 梁啓超, 《三十自述》, 〈戊戌變法〉4, p.45

12)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p.136

13) 《大同書》手稿 第一冊, 犬養毅題記, 天津圖書館 소장.

林克光 著, 《革斷派巨人康有爲》 p.345에서 再引用.

통이 중간에 끊어졌다. 청조의 黃梨州가 약간 그 한 점을 얻었다. 선생은 이에 《春秋三世義》, 《大同學說》 등 저서를 지어 공자의 참된 뜻을 발휘하여 밝히었다.”<sup>14)</sup> 그는 이 시기에 變法維新의 이론을 수립하고 維新人才를 배양하였다. 그는 유가의 公羊三世說과 禮運의 大同思想의 요소를 흡수하여, ‘公理’의 내용을 公羊化하고 孔子化하여, 양자 사이의 이론을 융합하였다. 梁啓超는 《萬木草堂口說》에서 康有爲의 대동사상의 내용을 적어놓았는데 다음과 같다.<sup>15)</sup>



이 대강은 만여 자가 넘는데, 今本 《大同書》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人生의 괴로움,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찾는, 국가경계를 깨뜨려 地球의 공통된 정부를 세움,

14) 《飲冰室文集》〈康南海傳〉

15) 臧世俊, 《康有爲大同思想研究》, p.67

군대를 없애버림, 가족경계를 깨뜨려 남녀가 평등함, 태교원과 육아원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와 양로원과 양병원 등을 공적으로 설립함, 토지 公有, 직업 보급, 노동시간을 줄임, 智人과 仁人을 장려하여 인종개량에까지 이른다는 등등, 구체적으로 발휘하여 《大同書》의 규모가 이미 초보적으로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단계(1888-1902). 기본적으로 《大同書》가 완성되었는데, 이 때 康有爲는 일본,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 여러 나라로 떠돌아다니며 자본주의 국가의 물질문명 및 그 내재적인 모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체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康有爲는 《大同書》를 다시 修正하기도 하였다. 그는 인도 大吉嶺에서 1902년 1월 20일부터 1903년 5월 떠날 때까지, 1년 반동안 문을 닫아걸고 《論語注》와 《大學注》, 《孟子微》, 《官制議》를 완성하였는데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 간 온 힘을 기울여 《大同書》를 완성한 것이다. 이 第三手稿는 둘로 나뉘어, 한 부분은 上海 文管會에 수장되어있고, 다른 부분은 天津 도서관에 수장되어있다.

제 3 원고는 각국을 떠돌아다닌 견문이 첨가되어 있어, 자본주의 제도의 선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긍정도 하였으나 그 병폐에 대하여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sup>16)</sup> 그 내용 및 文句는 오늘날 《大同書》와 기본적으로 같다. 康有爲는 이 저서를 완성하고 詩를 써서 그 뜻을 밝히었는데 다음과 같다.<sup>17)</sup>

16) 林克光 著, 《革新派巨人康有爲》, p.346

17) 《大同書成題事》(三首), 馬洪林 著 《康有爲》(上海人民出版社, 1986), pp.196-197에서 再引用.(번역은 필자)

은 세계가 모두 번뇌인데,  
나는 우연히 現身으로 왔다.

千界皆煩惱, 吾來偶現身.

감옥의 죄수가 혼탁한 세상에 슬피하니  
굶주려 도탄에 빠진 이 사람

獄囚哀濁世, 飢溺爲斯人.

여러 성인은 모두 좋은 약,  
푸른 하늘은 너무도 신령치 못하다.

諸聖皆良藥, 蒼天太不神.

백년동안 진화가 없으면,  
大地는 가라앉아 버리는 것.

百年無進化, 大地合沈淪.

인간의 길은 단지 즐거움을 추구할 뿐,  
天心은 오직 仁만 있다.

人道只求樂, 天心惟有仁.

먼저 모든 고통을 제거하니,  
점차 太平의 봄이 보인다.

先除諸苦法, 漸見太平春.

하나하나 꽃의 세계에 태어나니,  
사람마다 佛身을 드러낸다.

一一生花界, 人人現佛身.

大同에 오히려 길이 있으니,  
나는 살아있는 백성을 건지고 싶다.

大同猶有道, 吾欲度生民.

20년 넓은 소원을 품고,  
30권 저서를 완성하였다.

廿年抱宏願, 卅卷告成書.

衆病은 그친 것 같고,  
내 말은 역시 除去할 수 있다.

衆病如其已, 吾言亦可除.

사람과 하늘의 연분이 그치었으니,  
輪劫은 텅 빈 데를 돌고 돈다.

人天緣已矣, 輪劫轉空虛.

千秋의 일을 매달이 기록하니,  
醫王 역시 시초가 있다.

懸記千秋事, 醫王亦有初.

넷째 단계(1913년)는 기본적으로 원고를 정해놓은 것인데, 《大同書》의 셋째 원고의 일부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여, 글자의 흔적이 조잡할 뿐 아니라 고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많은 인용문들이 空白으로 남아 보충을 해야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全書의 구조, 즉 앞 뒤 순서가 今本과 비교적 많은 변동이 생긴 것이다. 예컨대 2권에는 今本 丙, 丁, 壬의 3 부가 포괄되어 있고, 제 5권에는 今本 乙部, 제 6권은 今本 庚部와 辛部의 6~10장, 제 7권은 今本 辛部 1~5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今本 각 부의 총 표제와 각 장의 표제가 없고, 작은 표제 또한 지극히 적다.

내용상에서도 보태고 줄인 것이 있다. 今本은 모두 6군데 增補하였다. 모두 2000여 字가 되고, 手稿本의 400여 자는 今本에서 刪去하였다. 이것을 보면 今本이 간행될 때, 결코 1902년에 쓴 제 3원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따로 판본이 있었던 것이다. 《大同書》 甲, 乙部는 최초로 1913년 《不忍》雜誌에 간행되었다. 1919년 長興書局에서 이 二部를 단행본으로 간행하여 《大同書》라는 이름을 붙였다.<sup>18)</sup> 康有爲는 自序 중에, “이 책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열 부로 되어있다. 우선 갑, 을 두 부분만을 인쇄하며, 이것은 《不忍》이라는 잡지에 이미 발표된 것을 뽑아서 출판하고, 나머지는 차후 인쇄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sup>19)</sup>고 하였다. 제자들은 다시 나머지를 출판할 것을 굳게 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 생애가 끝날 때까지 전부가 세상에 간행될 수 없었다. 그의 死後 8년 되던 1935년에서야 비로

18) 林克光, 《革新派巨人康有爲》, p.346

19) 康有爲, 《大同書》, 이성애 옮김, 저자서문, p.17

소 그의 제자 錢定安이 약간 교정을 가하여 中華書局에 넘겨주어 출판되었다.

錢定安이 인쇄에 붙인 《大同書》의 원고가 어느 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大同書》는 8권에서 10部로 고쳐져 있음을 보았고, 部, 章, 節의 표제가 첨가되어 있다. 이것은 1913년 《不忍》잡지에 甲, 乙 兩部가 간행될 때이다. 때문에 이 兩部를 간행할 때 1902년 완성된 원고본에 대하여 다시 구조를 조정하고 앞 뒤 순서를 바꾸고 또 增刪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全書의 사상 내용과 文句는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시 새로 편집하고 增刪하여 今本의 《大同書》가 완성된 것이다.<sup>20)</sup> 이것이 《大同書》가 만들어진 대강의 과정이다.

### 3. 대동사상의 핵심: 仁

《大同書》는 모두 10部로 되어있다. 甲部는 인간 세상의 고통의 종류와 근원을 논술하여, 어째서 大同 문제를 연구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康有爲는 공자의 仁 사상을 발휘한 맹자의 ‘不忍人之心’에 근거를 두고, 인류를 위하여 “九界를 버리고 大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대동사회의 목적은 인류를 위하여 ‘고통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去苦求樂)’이다. 康有爲는 살아있는 생물의 슬픔을 보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다음의 九界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九界의 내용을 살펴보면,

20) 林克光, 《革新派巨人康有爲》, p.347

첫째, 國界: 강도와 부락을 나눔.

둘째, 級界: 신분의 귀천과 淸濁을 나눔.

셋째, 種界: 피부색으로 황인종, 백인종, 갈색인종, 흑인종으로 나눔.

넷째, 形界: 남자와 여자를 나눔.

다섯째, 家界: 父子, 夫婦, 형제의 친분을 사사롭게 함.

여섯째, 業界: 농업, 공업, 상업의 개인 산업을 됨.

일곱째, 亂界: 不平, 不通, 不同, 不公한 法을 됨.

여덟째, 類界: 사람, 새,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의 구별이 있음.

아홉째, 苦界: 고통이 고통을 낳아 대대로 고통이 끝없이 유전되어 생각할 수도 없음.

인간의 불행은 태어나면서 九界가 존재하는 세상의 그물에 던져져 질고가 극심하다. …… 병을 알면 약을 살 수 있는 것이니, 이 九界를 없애고 속박을 풀어야 한다. …… 내가 생각하는 구제의 길(道)은 곧 九界를 없애는 데 있을 뿐이다.

첫째: 국가 사이의 경계를 없애어 세계를 하나로 한다.

둘째: 계급의 차별을 없애어 민족을 평등하게 한다.

셋째: 인종의 구분을 없애어 인류를 하나로 한다.

넷째: 남존여비의 사상을 없애어 독립을 보존한다.

다섯째: 가정의 경계를 없애어 天民이 되도록 한다.

여섯째: 산업의 경계를 없애어 생업을 공유화한다.

일곱째: 亂界를 없애어 平等世를 이룬다.

여덟째: 인간과 동물의 구분을 없애어 모든 생물을 사랑한다.

아홉째: 괴로움을 벗어나 극락세계에 이른다.21)

康有爲의 《大同書》는 甲部の 인간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入世界觀衆苦)에서 시작하여 九界의 마지막인 癸部の 괴로움이 없는 극락세계(去苦界至極樂)에서 끝맺고 있다. 《大同書》의 甲部는 저서 전체의 총체적 原理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康有爲는 공자의 仁 사상의 핵심을 맹자의 不忍人之心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대동학설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仁을 우주 만물의 본체로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仁이란 하늘에서 낳고 낳는 조리(理)가 되고, 인간에서는 널리 사랑하는 德이 된다. …… 仁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며, 人道는 서로 짝이 되어 끌어당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랑의 힘이다. 사실은 電力이다. 인간이 이 사랑의 힘을 갖추고 있으므로 仁은 바로 사람이다. 진실로 이 사랑의 힘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sup>21)</sup>

그는 공자의 ‘仁’ 사상을 ‘愛力(사랑의 힘)’으로 재해석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대동사상의 핵심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크고 큰 元氣가 天地를 만들었다. 하늘이란 一物의 魂質이고, 사람 또한 一物의 魂質이다. 비록 형체에 크고 작음이 있다 하더라도 太元에서 活氣를 나누어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큰 바다에서 물방울을 떠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공자는 “땅은 神氣를 싣고 있다. 神氣는

21) 康有爲, 《大同書》, 이성애 옮김, 민음사, 1991, pp. 146-147

22) 《中庸注》, 中華書局, 1987年, p.208

바람과 번개다.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데서 여러 가지 生物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神이란 지각이 있는 電氣이다. 빛과 전기는 가지 않는 곳이 없고, 神과 氣는 감응하지 못하는 데가 없게 할 수 있다. …… 생물들은 그 神을 모두 받기도 하고 일부분만 받기도 하는데, 오직 위대한 인간만이 온전히 받았다. …… 어떤 사물도 전기가 없는 것이 없고, 어떤 사물도 神 없는 것이 없다. 神이란 것은 知氣이며, 魂知, 精爽, 靈明, 明德이라 하며, …… 지각이 있으면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다. 자석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에게 어찌 끌어들이는 힘이 없겠는가? 不忍이란 끌어들이는 힘인 것이다. 그러나 仁과 智가 똑같이 간직되어 있지만, 智가 앞서게 되며, 仁과 智가 똑같이 작용하지만 仁이 귀한 것이다.<sup>23)</sup>

康有爲는 사랑의 힘은 남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는 不忍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끌어당기는,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사랑의 힘으로 대동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의 ‘仁’ 사상은 程明道の “天地萬物爲一體” 사상과 王陽明의 〈大學問〉에서의 “大人의 마음의 사랑(仁)이 본래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런데 康有爲는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神氣의 감응을 電氣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만물이 서로 감응할 수 있는 것은 元氣에서 天地와 人間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귀하고 인간을 위주로 하는 사상을 전개하여, 그는 “인간은 기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늘이 낳은 불가사의한 精英”<sup>24)</sup>이라고 하였다.

23) 《大同書》, 이성애 옮김, pp.35-36(역문 일부 정정)

24) 《大同書》, p.133

康有爲는 인간은 知覺을 가진 존재여서 외계의 자극에 대하여 반드시 쾌적하고 합당한 반응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게 된다고 하여, “쾌적하고 합당한 것은 神魂의 즐거움이요, 쾌적하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것은 神魂의 괴로움”<sup>25)</sup>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넓은 하늘 아래 생명 있는 무리는 모두 즐거움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면하려 할뿐이다. 다른 길(道)은 없다. …… 비록 인간의 본성이 같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나, 잘라서 말하면 人道는 괴로움을 구하고 즐거움을 버림이 없다는 것이다.<sup>26)</sup>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人道란 것은 인간에 의한 것을 道로 삼는 것이며, 인간에 의한 길은 괴로움과 즐거움뿐이다. 인간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은 괴로움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뿐이다. 다른 길은 없다.<sup>27)</sup>

고 하여, 人道의 내용을 “去苦求樂”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동사상을 일관하고 있는 내용이며, 去苦求樂을 康有爲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있는 인간의 樂趣와 인간 정감이 원하는 것이 무

25) 같은 책, p.5

26) 같은 책, p.5

27) 같은 책, p.5

엇인가? 입은 아름다운 음식을 욕구하고, 사는 집은 아름다운 宮室을 욕구하며, 몸은 아름다운 의복을 욕구하고, 눈은 아름다운 색깔을 욕구하며, 코는 아름다운 향기를 욕구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욕구하며, 다니는 것(行)은 민첩한 배와 수레를 욕구하고, 쓰는 것(用)은 훌륭한 기계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지식은 學問圖書를 욕구하며, 유람하는 이는 아름다운 정원, 수풀, 산, 연못을 원하며, 몸은 질병이 없기를 바란다. 養生達死는 결함이 없기를 바라며, 신체는 노닐며 올라가고 내려다보고 즐기기를 원하며 조용히 한가로이 휘파람 불며 자유롭기를 원한다. 公事大政은 미리 듣고 미리 의논하기를 원하며, 身世는 얽매임, 압제가 없이 초탈하기를 원한다. 명예는 뚜렷이 드러나 철저하게 크게 유행되기를 원한다. 精義妙道는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 이것들이 인간의 큰 소원이며 지극한 즐거움이다.<sup>28)</sup>

여기에는 인간의 각종 생리적 욕구, 물질적 욕망, 정신적 욕망까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욕구를, 康有爲는 이처럼 공개적으로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清代 초기의 戴東原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戴東原과 마찬가지로, 宋儒(朱子學)의 “天理를 간직하고 人欲을 막는다”는 주장을 반대하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주자학은 天理로 人欲을 말살한다고 생각하여, 인간의 욕구를 끊어버리면 人間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을 멀리하는 것은 道로 삼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므로 聖人은 天을 위주로 하지 않고, 人을 위주로 하였다. 이것은 ‘天理’ 두 글자가 완

28) 같은 책, p.42

전히 아름다움이 아니란 것이다.”<sup>29)</sup>고 하였다. 여기서 天은 天理를, 人은 人欲을 각각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四肢, 五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몸(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몸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나 서양 사람이 같이하는 것이다.”<sup>30)</sup>, “사람이 태어나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본성이다.”<sup>31)</sup>라고 하였다. 그는 주자학의 ‘天理와 人欲’의 주장을 ‘人理 天欲’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理란 인간이 세워놓은 것이다. …… 그러므로 理란 人理이다. 눈, 귀의 모든 몸, 血氣心知는 하늘이 먼저 부여한 것이다. 갓난아이는 無知하지만 이미 욕구를 가지고 있다. 人事에 관여함이 없다. 그러므로 욕구란 자연스러운 것(天)이다. …… 대체로 天은 욕구하고, 인간은 다스리는 것이다.<sup>32)</sup>

인간의 욕구는 天이 부여한 것이므로 금지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는 바로 ‘去苦求樂’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善, 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法을 세우고 가르침을 처음 만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하고 괴로움을 없애게 하는 것인데, 善의 善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많게 하고

29) 《康先生12說》

30) 《大同書》

31) 같은 책.

32) 《內外篇, 理氣篇》

피로움이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善하지만, 모조리 다 善하지는 않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피로움이 많게 하고 즐거움이 적게 하는 것은 不善한 것이다.<sup>33)</sup>

라고 하였다. 이처럼, ‘去苦求樂’의 정도에 따라서 善과 不善이 결정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去苦求樂’의 인도주의는 공자의 仁, 맹자의 不忍人之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대동사상은 유가적 전통 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仁’ 사상은 공맹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천부인권설’의 내용을 이 속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康有爲는 근대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은 하늘의 所生이다. 부모가 몸을 낳음에 의탁하여 인간이 되었지만, 부모가 전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사람마다 곧바로 하늘에 예속되어있다.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아 통제할 수 없다. 대개 한 사람의 몸은 한 사람 몸의 自立을 가지고 있어 私屬이 없다. 그러나 간혹 아버지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자식을 괴롭히거나, 어머니가 편애하는 성질을 가지고 그 손자를 학대하는 것은 모두 人道의 獨立된 뜻을 잃고 천부인권의 理를 손상시키는 것이다.<sup>34)</sup>

여기서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것도 不仁하다고 생각하고, 人道를 상실하는 것이며 천부인권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康有

33) 《大同書》, p.7

34) 같은 책, p.44

爲는 맹자의 '天民' 개념을 빌어와서 서구의 '天賦人權說'과 결합시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마다 모두 天이 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이라 말하지 않고 天民이라 말하였다. 사람마다 모두 天生한 것이라면, 곧바로 天에 예속되어있고, 사람마다 모두 독립되어 평등하다. 사람마다 모두 同胞이며 서로 형제 같이 친하다.<sup>35)</sup>

康有爲는 사람마다 독립적이고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설에 의거하여 上下主從的 三綱五倫의 봉건윤리·제도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평등한 인간관에 의거하여 대동사회의 실현을 꿈꾸었다.

전 세계인이 家界의 얽매임을 제거하려면, 남녀평등, 각자 독립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것은 天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 전 세계인이 大同의 세계, 즉 태평의 경지를 실현하려면, 남녀평등, 각자독립을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은 天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이다.<sup>36)</sup>

康有爲는 天民의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家界 뿐만 아니라, 國界, 種界 등 九界를 제거하여 大同의 세계를 실현코자 하였다.

35) 《孟子微》, 中華書局, 1987年, p.13

36) 《大同書》, pp.252-253

#### 4. 대동사회의 理想

康有爲의 대동사회는 우선, 國界를 제거하여 국경 없이 세계를 하나로 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국가로 인한 해로움이 무엇인지 동서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나서,

나라가 있어 경쟁을 하면 사태가 반드시 이에 이른다. 그러므로 국가란 인간이 만든 단체의 시초이므로, 반드시 부득이한 것이지만, 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거대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문명국일수록 전쟁으로 인한 참화는 더욱 극렬했다. …… 아아, 슬프고도 참혹하도다. 국가의 경계가 있음이여!<sup>37)</sup>

라고 하였다.

인간이 만든 국가가 서로 경쟁하는 데서 전쟁까지 하게되며, 그 전쟁의 참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의 경계를 없애버려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즐거움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康有爲는 단독국가, 관제제도를 제거하고 민주적인 세계 정치조직을 건립하는 것은 중국 고대의 ‘天下爲公’과 ‘天下如一家’를 연상시키며, Kant가 주장하는 “영구평화론(Project for a Perpetual Peace)”를 연상케 한다.<sup>38)</sup>

康有爲는 단독국가의 경계(國界)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온 세

37) 《大同書》, p.194

38) 蕭公權 著, 王榮祖 譯, 《近代中國與新世界: 康有爲變法與大同思想研究》, 江蘇人民出版社, 1997年, p.405

계가 統一되고 平和롭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정치발전을 예로 들어 증명하였는데, 첫째는 많은 국가가 통합되어 더욱 커다란 정치실체가 되는 것인데, 중국의 통일과 인도의 아소카왕의 인도통일이 그 예이다. 둘째는 政權이 점차적으로 平民에게 옮겨가는 것인데, 미국의 혁명이 먼저 민주운동을 제창하여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이 그 예이다. 전자는 武力의 方法으로도 가능하지만, 후자는 반드시 평화적 민주적 방법을 통하여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康有爲는 과거의 정치통일은 군사적 정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앞으로의 대동세계는 반드시 평화적 방식으로만 이러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여, 인류가 大同으로 나아가는 데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大同에 이르려면 먼저 전쟁을 그만둠으로 그것을 창도하고, 다음에는 연맹국으로 묶어놓고, 이어서 公議會로써 이끌게 하여 순차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반드시 大同에 이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sup>39)</sup>

이러한 대동세계는 아마도 1세기 중에는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는 세계적인 “公議政府”를 설치하는 것이 대동세계의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이 기구의 대표는 각국에서 매년 공평하게 선출된다. 비록 대통령을 세워서 각국의 주권을 통치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대표를 거쳐 한 사람의 發言人을 선출하고 일체의 사무는 모두 다수로 결정을 한다. 이 전 지구적인 입법기구에는 일체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다 처리하지만, 기타의 일은 개별 국가가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sup>40)</sup> 이러한 公議會, 즉

39) 《大同書》, p.88(p.199)

세계의회는 국제간 서로 왕래하는 統一사무를 집행하는데, 여기에는 국제법을 제정하고, 국제분규를 조정하며, 세율과 도량형을 통일하고, 만국어(에스페란토語와 같은)를 발전시켜 각국의 각종 언어를 대신하는 것까지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세계의회는 개별국가의 군대를 조절하거나 스스로 武力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康有爲가 설계한 세계의회는 그 권력이 오늘날의 UN기구보다 훨씬 초과되어 있다.<sup>41)</sup>

康有爲는 국가연합을 실행할 세 가지 방식을 제출하였는데, “첫째, 각국이 평등하게 연맹을 결정하는 형태. 둘째, 각 연방이 각자 自治를 하다가 큰 정부체제에 큰 정치로 통일되는 형태. 셋째, 邦國이라는 칭호도 없애고 국가의 경계도 없애며 각자의 州郡을 세워 公政府의 통일되는 형태가 있다.”<sup>42)</sup> 康有爲는 이 公政府, 즉 세계정부가 바로 유토피아를 건립하는 주요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sup>43)</sup> 康有爲는 大同合國 三世表에서 大同이 성취된 태평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大同의 세계는 百司가 모두 있지만 兵刑 두 관리가 없다. 군대도 없고, 형벌도 없으며, 군주도 없고, 귀족도 없다. 세계(公) 정부의 관리자는 인민이 공개적으로 뽑은 “智人”, “仁人”이다. 또 세계정부는 결코 총통을 둘 수 없고, 동시에 총리도 둘 수 없으며, 단지 의장을 두

40) 《大同書》, pp.214-216

41) 蕭公權, 《近代中國與新世界: 康有爲變法與大同思想研究》, p.407

42) 《大同書》, p.88

43) 蕭公權, 《近代中國與新世界: 康有爲變法與大同思想研究》, p.408

는데, 각국에서 파견된 의원 중에서 공정하게 입후보하고 …… 다수결에 의해 선출한다.

국가가 없으므로 조약이라 할만한 것도 없고, 동맹이라 할만한 것이 없다.

비록 세계(公)정부가 있으나, 각 界와 각 度는 자치하여, 통치할 것이 없다.(18)

누구를 막론하고 세계정부를 배반하고 일정한 곳에 응거하여 반란을 꾀하거나 제왕 군주의 칭호를 부르고 작위를 회복하려는 자는 모두 반역으로 가장 큰 죄가 된다.(I-23)

각 지역은 또한 입법권과 자치권이 있으나 세계의 법률은 세계정부, 상·하 의원 속에서 공정하게 논의하여 입법한다.(II-1)

국가가 없어서 상의원은 각 界, 각 度에서 뽑고, 하의원은 백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 뽑는다.(9)

의원은 각지에서 3년에 한 번씩 뽑거나 매년 한 번씩 뽑기도 하는데, 그때그때 논의하여 정한다.(11)

세계정부의 행정관은 상·하 의원에서 공정하게 선거한다.(19)

국가가 없으므로 백성의 권리와 자유는 무한하지만, 단지 公議法律의 제한을 받는다.(VI-2)

국가로 인한 경계가 없고 인종으로 인한 경계도 없이 백성들은 평등하다.

백성들은 죄가 없고 모두 公權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고 부역도 없다.(VI-10)

공민은 여자나 모습으로 인해 차별할 수 없다.(VI-11)

사람마다 모두 大同하고 지극히 공변되어 모두 天民이 된다.(VI-16)<sup>44)</sup>

李澤厚는 이러한 논증을 다음 몇 가지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신흥 중산계급의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 보수적이며 부패한 봉건전제제도에 대한 불만과 반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사상은 매우 커다란 진보성을 갖고 있다. 둘째, 康有爲가 《大同書》에서 그린 '民主'는 일시에 이를 수 없고, 각종의 제한이 있는 '君主立憲'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完美한 민주는 단지 머나먼 理想일 뿐이며, 통치자를 향해서 극히 제한된 '民權'(君主立憲)을 요구해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이 점은 康有爲의 통속적 역사진화론의 개량주의 사상의 본질이다. 셋째, 《大同書》는 주로 국가로 인해서 생기는 끝없는 전쟁으로부터 출발하여 반드시 국가를 재건해야만 된다는 의침을 내놓았으므로, 현상적으로 국가는 침략적 도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당시 半植民地 중국의 帝國主義의 야만적 침략에 대한 반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44) 《大同書》, 〈大同合國三世表〉, p.253-

空想이 나오는 것은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up>45)</sup>

이러한 논평은 중국학계의 마르크스적 계급주의 관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康有爲를 신흥 자산계급의 정치적 대변인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民主와 民權을 구분하여 康有爲가 君主立憲을 주장하는 한, 革命이 아닌 改良論者라 본 것과 《大同書》가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현실적 요구에서 나온 산물이며,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합리성을 인정한 것도 매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康有爲가 구상한 대동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독립적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사유가 아닌 公有制의 사회여서, 농업, 공업, 상업은 모두 公有 公營을 실시하며, 계획·생산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계(公)정부가 장악하고 조작하는 것이다. 세계정부의 주요한 직능은 사회경제와 관련 있는 각종의 사무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다.<sup>46)</sup> 산업간의 경계를 없애 생업을 공평하게 한다는 庚部의 사상은, 대동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논하고 있으며, 그것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농업의 大同이 안되면 골고루 생산(均產)하지 못하여 飢民이 생긴다.”, “공업의 大同이 안되면 노동자(工人), 黨, 業州가 다투어 나라의 혼란을 이루게 된다.”, “商業의 大同이 안되면 인간은 사기근성이 생기고 잉여재화 때문에 물건을 진귀하게 만든다.”<sup>47)</sup>고 하고, 개인 농업과 공영 농업, 공업, 상업을 논하고 있다.

45) 李澤厚, 《中國近代思想史論》, pp.165-166

46) 臧世俊, 《康有爲大同思想研究》, p.114

47) 《大同書》, pp.495-530

康有爲는 “대동을 이루려 한다면, 사유재산을 없애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 상업, 공업은 반드시 公度에 귀속시켜야 한다. 세상의 모든 토지를 公有化해서, 私有를 금하고, 개인적인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sup>48)</sup>고 하여 대동사회의 토지 공유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토지공유를 실행하는 방법은 세계정부의 農部가 天下의 農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界, 각 度의 작은 정부가 農曹를 세우고, 農局을 설치하여 따로 관장하여 다스리며, 개인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매매할 수 없다. 농민 중 일정한 학교교육과 農局의 培養을 받아 재능과 지혜가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자는 발탁되어 農官이 될 수 있다. 밭갈기는 科學化·機械化를 실행하여, 농민의 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일하는 시간은 마치 한가로운 선비가 꽃에 물을 주는 것 같고, 영웅이 채소를 심고 隱者가 낚시질하며, 호걸이 사냥을 하는 것처럼 쉽고 평안하다.”<sup>49)</sup> 이처럼 康有爲는 농업의 공영을 통하여 생기는 유토피아를 묘사하고 있다.

그는 ‘공영 공업(公工)’에 대하여도, 그의 논지에 따라, 대동사회는 “천하의 기술자·노동자(工人)를 반드시 공영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때는 크고 작은 제조공장, 철도, 선박들이 모두 공영화되고, 한사람(獨人)이 하는 개인사업은 허락되지 않는다.”<sup>50)</sup> 여기서 크고 작은 여러 공장에 대하여 공유제를 실시하여, 세계정부는 工部를 세우고, 각 度정부는 工曹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한다. 따라서 한사람(獨人)이 사유화하여 경영, 즉 관리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

48) 같은 책. p.510

49) 같은 책. p.518

50) 같은 책. p.520

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공장은 한 개인 企業家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공영화를 통해서 공장이 운영되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四民의 관념을 깨뜨리고, “야만스런 시대에는 공업을 가장 천하고 하찮게 여기고 工人에 대한 대우도 매우 박하지만, 태평세에는 공업이 가장 귀한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工人이 되려는 사람이 제일 많고, 工人에 대한 대우도 매우 후하다.”<sup>51)</sup>고 하여, 工人을 우위에 두었다. 이것은 서구의 堅船利砲에 밀린 중국을 近代化시키려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康有爲는 “태평세에는 달리 숭상하는 것이 없고 공업만을 숭상한다. 태평세에는 달리 높이 존중하는 것이 없고, 기술자(工)가 새로 만들어 낸 기계만을 중시하며, 이때에는 괴로워하는 것은 없고 기술자(工人)가 된 것을 즐거워할 뿐이다.”<sup>52)</sup>라고 하여, 기술자·노동자(工)의 지위를 매우 숭상하였던 것이다.

康有爲는 대동사회는 “공영 상업(公商)”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대동세의 상업에서는, 사유재산을 가진 상인이 될 수 없다. 전 지역의 상업은 모두 세계(公)정부의 商部에 귀속되어 통솔된다.”<sup>53)</sup>고 하였다. 상부는 구체적으로 생산품 유통의 영역을 책임지는 일을 맡기 때문에, 생산계획에서 분배계획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된다. 康有爲에 의하면, 분배계획은 “농업과 공업에서 생산해낸 貨物은 상부에서 각 度의 인구수와 일상용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철로와 기선을 이용하여 나누어, 商曹로 물품을 운반하여 보내면, 상조에서는 각 鄉市의 인구수를

51) 같은 책. p.523

52) 같은 책. p.522

53) 같은 책. p.526

조사해서 각 상점으로 분배한다.”<sup>54)</sup>는 것이다. 상점은 貨物 분배의 기본단위로써 全天候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추어 물건을 매매하며, 그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고 점원은 퇴근한다.”<sup>55)</sup>

康有爲는 총론에서 농·공·상업의 대동을 실행하려면, 남녀의 인권을 분명히 하는데서 시작한다고 하여, 이렇게 주장하였다.

대동세를 빨리 이루려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나라를 없애는 것이다. 백성이 개인의 사업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매우 쉬운 일로, 먼저 개인의 가정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나라의 경계를 없애려고 한다면, 역시 가정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sup>56)</sup>

여기서 康有爲는 그의 유교적 특징을 상실하게 된다. 家中心, 人倫中心의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家를 없애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康有爲는 유토피아의 대동세계를 그리면서 현 제도하의 남녀관계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여성이 두 배로 억압받는 상황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면서, 진정한 남녀평등과 부녀의 완전해방을 주장하였다. 康有爲는 혼인관계와 血親이 인간 불평등의 가정제도를 만들어내었으며, 특히 性別 사이의 不平等이 현실의 괴로움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불평등을 해소할 두 가지 단계를 마련하였다.<sup>57)</sup>

첫째 단계는, 여성을 점차로 평등과 自立케 한다. 여자와 남자는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정치권력을 운용하며, 自由社交와

54) 같은 책. p.527

55) 같은 책. p.529

56) 같은 책. p.532

57) 蕭公權, 《近代中國與新世界: 康有爲變法與大同思想研究》, p.411

婚配를 하며, 다시는纏足, 整臉, 穿耳, 束腰 등 고통과 부패의 습속을 따르지 않는다. 기혼 여자도 남편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모든 여자는 남자와 같은 식의 옷을 입어, 獨立과 平等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남녀 모두 더 많은 自由를 획득하여, “남녀의 혼인은 모두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다. 정감과 의지가 서로 맞으면 合約을 맺으니, 交好의 약속이라 하여 부부라는 옛 명칭을 부르지 않는다. 남녀는 이미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 어느 한 쪽이 가볍거나 무겁고, 높거나 낮은 차별이 없다. 만일 높고 낮은 차별이 있다면 한쪽이 종속되게 되어 婚約이라 할 수 없다.”<sup>58)</sup> 만약 조금이라도 높고 낮음이 생기면, ‘천부인권의 독립된 뜻’에 어긋나게 되며, 다시 남존여비의 풍조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았다. 옛날식 혼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康有爲는 交好의 약속은 기한부로 하되, 종신토록 약속하는 것은 무효로 하게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성품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로 같을 수가 없다. 또 아무리 어질고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도 언제까지나 서로 화합하고 서로 행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오래되면 싫증이 나서 새로운 상대를 바라게 되고 아름다운 상대를 좋아하게 마련이다. 예전에 婚約하여 이미 佳人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재능과 학식이 높고 모습이 아름다우며 성품이 온화하고 재산이 풍부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애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대를 바꾸어 교체하기를 바랄 것이다.<sup>59)</sup>

58) 《大同書》, p.370

그런데도 계속 婚約을 하려한다면 쌍방은 모두 즐겁지 않을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혼인제도는 大同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전통사회에서 父權가정은 사회구조의 중견적이었는데, 영구적인 婚約이 없다면 父子 사이의 관계도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大同의 세계에서는 父權이 반드시 없어져서 보편적인 自由와 평등이 되어야 한다. 父權가정이 이미 없어지게 되면, 아버지 위주의 혼인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 康有爲는 이렇게 말한다.

혼인의 기한은 길어도 일년을 넘지 못하고, 짧아도 일 개월을 채우게 한다. 서로 뜻이 맞으면 계속적인 合約을 허락한다. 중매관을 두어, 모든 남녀가 결혼하고자 하면 어디서나 중매관을 찾아가서 증서를 받고 합약을 맺으며, 기한 내에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한다.<sup>60)</sup>

이러한 건의는 혼례를 二姓의 합으로 보고, 위로 宗廟를 섬기고 아래로 후세를 계승하며, 부부가 종신토록 改嫁하지 않는 《禮記》의 전통적 혼인관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康有爲는 대동사회의 혼인의 기초는 “남녀의 일은 다만 인간 정감의 좋아함에 따라갈 뿐, 이것으로 父子의 宗法 전통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sup>61)</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宋代이래로 숭상되던 여자의 貞節은 康有爲의 사상에는 조금도 중요성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康有爲의 위와 같은 “交好의 約束”에 의한 혼인관은 필연적으로 宗法제도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가족관계가 없는 天

59) 같은 책, p.377

60) 같은 책, p.375

61) 같은 책, p.165

민이 되는 대동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게 된다. 康有爲는 가정이란 태평세의 장애물이라 생각하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해로움으로 14가지의 예를 들었다. 가정풍속과 생활수준, 교육수준, 빈부차이는 모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며, 이에따라 자기 처자만을 위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걱정이 생겨, 이기적이고 편협한 성품이 생기며,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공익사업, 즉 육아원, 유치원, 양로원, 빈민구제소 등의 비용을 마련할 수 없고, 도로, 교량, 건설, 국토개발 등 사회간접투자에 들어갈 비용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sup>62)</sup>

康有爲는, 따라서 태평세가 “실현되려면 가족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sup>63)</sup>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가정을 없애고 天下를 公有하는 훌륭한 法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가족제도를 폐지하고 태평세에 도달하는 데 있어, 차마 부모와 부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도리를 그대로 존속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내 생각으로는 바른 길을 제대로 따라 차차 가다보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낳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늘에 속해있다. 또한 공립정부는 사람들이 공공으로 세운 것이니, 공립정부는 마땅히 공공으로 양육하며, 교육하여 돌봐 주어야 한다.<sup>64)</sup>

康有爲가 말하는 바른 길은 바로 대동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

62) 같은 책, pp.418-420

63) 같은 책, p.420

64) 같은 책, p.422

것을 그는 公養, 公敎, 公恤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公養의 방법은, 첫째로 임신한 사람이 모두 들어가 胎敎를 시행하는 人本院, 둘째로 아기를 낳으면 公立育嬰院으로 옮겨져 보살핌을 받고, 셋째로 어린이가 3살이 되면 公立懷幼院에 옮겨져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公敎의 方法은, 첫째로 6살이 되면 들어와 교육을 받는 公立蒙學院, 둘째로 10~14세의 아동 교육기관인 公立小學院, 셋째로 15~17세까지 교육받는 公立中學院, 넷째로 18~20세까지 교육받는 公立大學院이 그것이다. 끝으로, 公恤의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로 질병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입원치료를 받는 公립 醫疾院, 둘째로 60세 이상의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이가 들어가는 公립 양로원, 셋째로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가 들어가는 公립 恤貧院, 넷째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는 公립 養病院, 다섯째로 죽은 사람이 안치되는 公립 化人院이다.<sup>65)</sup>

대동세계의 이상은 하나의 인류가 大同하여 天下가 公有되는 사회이며, 여기서는 사람마다 자유롭게 평등하다. 康有爲는 위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제시하여 大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회원칙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는 '어진사람(仁人)'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세계정부에는 獎仁院을 설치하고 度정부에는 獎仁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仁惠의 일은 모두 공적으로 仁人의 칭호를 증여한다. 그 仁惠의 크고 작음에 차등을 두어 등급을 만든다. 대체로 그 높고 낮음을 등급매기고, 次數의 순서를 논하는 것은 많은 것을 귀하게

65) 같은 책, pp.423-424

여긴다.”<sup>66)</sup>고 하여, 공적의 쌓임이 10次, 50次, 100次, 또 그 이상에 따라, 上仁人, 大仁人, 至仁人, 그리고 大人天人 등으로 나누어 명칭을 부여하였다.

康有爲는 대동세계의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四禁”을 주장하였는데, 첫째로 나태를 금한다. 대동세에는 사람들이 너무도 쾌적하고 즐거워 게으른 생각이 쉽게 싹트므로 사회의 퇴화와 정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게으른 사람은 명예를 깎아버리고 강제 노동을 시킨다. 둘째, 獨存을 금한다. 대동사회는 사람마다 평등하므로 어떠한 獨尊의 경향도 반대한다. 셋째, 경쟁을 금한다. 경쟁은 인성의 개인주의(自私)를 조장하고, 인류가 경쟁으로 인하여 서로 죽이는 비극이 생기므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낙태를 금한다. 대동사회는 가정이 없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독립 자유이다. 따라서 婦女가 子女를 生育하는 것은 완전히 사회의 의무가 된다.

끝으로, 康有爲는 ‘괴로움이 없는 극락세계’를 대동세계의 최후 단계로 생각하였다. 그는 “대동세에 이르면, 공자의 三世說도 모두 이루어진다. …… 그러므로 대동세는 오직 신선사상과 불교 두 가지만 크게 성행할 뿐이다. 大同이란, 이 세상 道義 중에서 극치이며 신선사상의 長生不死는 더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상의 극치인 것이다. 불교의 不生不滅이란,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지만 世間을 나와서 더욱 대동의 세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신선술과 불교 이후에는 하늘에서 노니는 학문인 天遊學이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한 것은 다시 책으로 쓸 것이다.”<sup>67)</sup>라고 《大同

66) 같은 책, p.289

67) 《大同書》, pp.617-618

書》 전체를 끝맺고 있다.

康有爲는 공자의 三世說에서 대동세계의 이상을 발견하고, 神仙 사상과 佛敎에서 그 극치를 찾았던 것이다. 그는 결국 종교적 유토피아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 5. 마무리

康有爲의 대동사상은 公羊 三世 역사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류사회의 발전은 亂世에 있다가 升平世로 진화되고, 다시 여기서 太平世로 진화된다는 것인데, 이 태평세야말로 《禮記·禮運》에서 말하는 ‘大同’사회였다. 이 대동세계는 온세상이 公有되는 공동소유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賢人과 仁人을 선출하여 대동사회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중심주의에서 생기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과부, 홀아비, 고아, 독신, 그리고 병든 이들까지 소외 받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주의를 理想으로 생각한 것이다.

康有爲는 《禮記·禮運》편은 공자의 微言大義가 참되게 전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나타난 대동사상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대동철학을 전개하였다. 康有爲는 《禮運注》에서 天下國家는 一人, 一家가 私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天下國家사람들을 위한 公共所有의 도구라고 말하였다. 태평세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사림이 서로 平等自立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天下는 公正하게 되어, 貴賤도 없고 貧富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으며, 남녀차별도 없고 군주도 없고, 나라도 없다. 사람마다 공유재산에

의하여 길러지고, 교육되며, 보살핌을 받는다. 사람마다 모두 公平하기 때문에, 大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禮運注》에 나타난 대동사상은 후일 《大同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대동사상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에 걸쳐 修正 補完되어 마침내 《大同書》로 완성된 것이다. 그는 1884년을 기점으로 하여, 유가경전, 불교경전, 서양의 번역서 등을 널리 읽고서 여러 가지 사상을 융합하여, 1913년 현존하는 《大同書》를 내놓기까지 30년이 걸린 것이다.

《大同書》는 모두 10部로 구성되어있다. 甲部는 총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인간세상의 고통의 종류와 근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九界를 버리고 大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는데, 대동사회의 궁극적 목적은 ‘去苦求樂’으로 요약된다. 《大同書》의 기본적인 핵심은 역시 공자의 ‘仁’과 불교의 ‘자비’이다. 그는 공자의 仁사상에서 시작하여 불교의 출세간으로 끝맺고 있다. 康有爲는 공자의 仁을 사랑의 힘으로, 맹자의 ‘不忍人之心’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이 끌어들이는 사랑의 힘으로 대동사회의 건설을 꿈꾸었다. 康有爲는 이 세상의 衆生은 모두 去苦求樂을 추구하는데, 이 길(道)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人道도 바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去苦求樂은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으로, 인간의 각종 생리적 욕구, 물질적 욕망, 정신적인 욕구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康有爲가 이처럼 인간의 욕구를 공개적으로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天理와 人欲을 엄하게 구분한 朱子學을 비판한 戴東原과 그 사상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는 천이 부여한 것이므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去苦求樂하는 인

간의 욕구야말로 善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康有爲는 공자의 仁사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천부인권설'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도 모두 人道의 뜻을 잃고 人權의 理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맹자의 '天民' 관념을 서구의 '천부인권설'과 융합시켜, 사람마다 모두 天이 生한 것이므로 國民이라 하지 않고 天民이라 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고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康有爲는 이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九界를 제거하여 대동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첫째로, 강토를 나누는 國界를 제거하여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둘째로 신분의 귀천을 나누는 級界를 제거하여 민족을 평등하게 하고, 셋째로 피부색깔로 인종을 차별하는 種界를 제거하여 인류를 하나로 하며, 넷째로 남녀를 나누는 形界를 제거하여 남존여비사상을 없애고, 다섯째로 親疎를 나누는 家界를 제거하여 모두가 天民이 되게 하며, 여섯째로 농·공상의 개인산업의 경계를 제거하여 생업을 公有化하고, 일곱째로 불평등·불공정한 亂界를 제거하여 太平世에 이르며, 아홉째로 고통이 계속되는 苦界를 제거하여 극락세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九界 중에서 제일먼저 國界를 제거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고, 참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즐거움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康有爲는 大同合國 三世表에서 대동이 성취된 태평세를 묘사하면서, 대동의 세계는 군대도 없고 형벌도 없으며 군주, 귀족도 없으며, 세계정부의 관리는 인민이 공개적으로 뽑는 智人, 仁人이라 하였다. 康有爲가 구상한 대동세계는 정치적으로 세계(公)정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사유가 아닌 公有制이

다. 이 제도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이 모두 公有·公營이며, 생산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계정부가 장악하는 것이다.

康有爲는 유토피아의 대동세계를 그리면서, 참된 남녀평등과 부녀의 완전해방을 주장하였다. 그는 현실의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녀의 혼인을 모두 본인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合約을 하게 하였다. 이 합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康有爲는 交好의 약속을 기한부로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혼인의 기간은 길어도 일년을 넘지 못하고, 짧아도 일 개월은 채우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宗法制의 적극적 부정을 의미하며, 그는 태평세가 실현되려면 가족제도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가족제도를 폐지한 다음, 세계(公)정부는 公養, 公教, 公恤의 방법에 의하여 대동세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康有爲는 이 대동세계의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태, 독존, 경쟁, 낙태', 이 네 가지를 금지하였다. 끝으로, 그는 피로움이 없는 극락세계를 대동세계의 최후단계로 생각하였다. 그는 神仙術과 佛敎의 경계까지 뛰어넘는 '天遊學'을 제시하여 《大同書》의 끝을 맺고 있다.